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 박노해 글·사진 느린걸음 펴냄 | 9천8백원

### 폐허의 지평선 '아체' 살아남은 자의 슬픔

<노동의 새벽>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과 파문을 던진 시인 박노해가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태풍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 아체주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처참한 현장을 글과 사진에 담았다. 그 기록의 편린들이 한데 모여 묶여진 것이 바로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이다.

박씨가 찾은 아체주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머리쪽에 위치해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금과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인구 400만의 도시이다. 하지만 '아체'는 '쓰나미'가 휩쓸고 가기 전까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하나의 지명이었다. 가난과 종교적인 분쟁만이 난무한 곳이란 오명외에는 별다른 내세를 것이 없었다.

그곳을 최근 노동운동가에서 평화활동가로 변신해 홀로 세계의 빈곤 및 분쟁 지역을 돌며 조용히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노해 시인이 폐허가 된 아체주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쓰나미 이후 아체인들의 삶과 오래된 고통을 향해서도 시선을 돌려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체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우리는 아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지은이는 이 책에서 말한다. "가난과 분쟁과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결코 우리가 넘어온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의 거울이다.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 가에 따라 우리 삶의 미래는 규정될 것이다."라고.

아체에 도착한 지은이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폐허의 지평선'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선의 끝까지 거대한 폐허의 지평선이 있을 뿐이다. '쓰나미'의 위력이 원자폭탄의 약 250배 규모였다고 하니 40만명의 생명을 빼앗고 폐허만 남게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지만 지은이는 망연자실한다. 지은이가 만난 아체주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살아남은 행운에 감사해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난민 천막촌 사람들은 오히려 가족과 이웃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아체에서 특이한 현상도 발견했다. 난민촌에서 만난 아이들은 아무도 아이답게 소리내어 울지 않더라는 것이다. 엄청난 비극이 그들을 더 이상 어린 아이로만 남아 있을 수 없게 했다는게 지은이의 설명이다. 마치 가느다란 작은 나무에 너무 큰 열매가 달린 듯 아이들은 하루 아침에 철이 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울음을 삼켜버린 아이들은 서로를 안으며 행거주고, 스스로 물을 길고, 밥을 차리고, 양땀은 손으로 땀배를 하고, 고철을 모아 팔기도 하는 등 일에 파묻혀 일상을 살고 있었다.

또 어른들에게는 무너진 자기집의 잔해를 깨트려 건진 철근 몇가닥이 당장 유일한 재기의 밑천이었다. 고철 1kg를 팔면 700루피아, 우리 돈으로 70원쯤 된다. 성인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30kg 정도의 고철을 모을 수 있으니, 2천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하지만 이 돈은 고작 하루 밥값과 물값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절망의 노동'이라고 지은이는 마음 아파한다. 더욱 지은이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구호금이나 작별하며 뒷집만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레도 이런 아버지들과 같은 아체에 희망이 조금씩 속구치고 있었다. 다행스런 일이다. 아이들이 그 희망의 중심이었다. 아이들은 그 흔한 축구공하나 없지만 폐허더미에서 부서진 벽돌조각을 가지고 재미나게 축구를 하며 미소지었다. 지은이가 방문한 고아원에서는 매일 희망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슬픔의 힘'과 '가난의 힘'입니다. 그 힘은 우리를 강한 하나로 이어줍니다. 우리 서로의 고통을 아무런저러 줄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따뜻이 껴안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도 물레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꼭 안아 주실 거예요." 고아들의 강한 다짐과 발원의 기도가 끝나자 고아원은 이내 소리없는 울음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물론 지은이도 함께.

이처럼 지은이는 이 책에서 사진과 산문, 시를 통해 아체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우리를 생생하게 이끌고 있다. 그는 때로는 고통의 목격자로, 때로는 고뇌를 함께 하며 희망을 모색하는 아체인의 친구로, 때로는 구호성금의 전달자로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서 움직였다.

이 책이 더욱더 현상 냄새가 풀풀 전달되는 것은 지은이가 직접 찍은 100여 장의 강렬한 흑백사진들이다. 지은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선으로 아체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내면,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그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을 덮고 나면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감상한 느낌이 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세계 빈곤 · 분쟁지역 돌며 구호활동 펼치는 박노해 시인 쓰나미 폐허더미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 찾아나가는 아체인의 가슴 아린 고통 사진 · 시 · 산문으로 생생히 전해

'하늘이여 저에게 화를 내고 계신가요, 여기가 세상의 심판대인가요 인도네시아의 검은 머리라 할 수 있는 아체를 이렇게 날려 버렸어요 아무 경고도 없이, 아무 자비도 없이' -'아체'를 기리며 중에서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썼다 조재곤 지음 푸른역사 펴냄 | 1만4500원

개화파의 주역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은 1894년 상하이에서 자객 홍종우에게 무참히 살해당한다. 이 책은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는 어떤 인물이며 김옥균 암살 사건이 당시 조선·일본·중국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용됐고 3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김옥균과 홍종우의 사상이 왜 조화되지 못하고 충돌로 치달았는지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도 설명한다.

지은이는 학계의 기존 설과는 달리 홍종우가 조선을 '수구'하기 위해 김옥균을 제거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홍종우 역시 개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홍종우 역시 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홍종우가 김옥균이 일본에 전적으로 의지해 정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그를 쫓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입장이다.

이어 지은이는 김옥균 암살사건이 동양의 역사를 뒤흔들었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조선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에게 이 사건은 좋은 구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옥균은 현실적 수단으로 일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고 홍종우는 제국주의 질서가 판치는 시

### 격변의 개화기, 두 지식인의 일생

대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 지은이의 결론이다.

홍종우는 사실 김옥균에 비해서 역사속에서 덜 알려진 인물이었다. 명문가의 자제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김옥균과는 달리 홍종우는 벽촌의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화사상에 눈뜨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90년 프랑스로 건너가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 된다. 그로부터 3년동안 체류하면서 그는 볼테르의 사상을 흡수하며 근대화의 열망을 키워갔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근대화는 김옥균과는 방법을 달리 했다.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김옥균이 일본 망명 시절, 단발을 하고 이와다 슈사쿠로 개명하며 반해 홍종우는 파리 체류 시절 늘 한복을 입고 다녔다.

김옥균은 일본을 조선의 나아갈 모델로 보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홍종우는 서구 문명을 익히면서 서도 그 속에 숨겨진 제국주의의 야심을 경계했다.

둘 사이의 이같은 차이가 과연 암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가져 올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솔직히 책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다만 주체적 근대화를 위해서 왕권 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홍종우의 눈에 일본을 끌어들여 왕권을 뒤집으려고 노리는 김옥균의 존재가 위협적이었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

외세의존적 개화파에 대한 홍종우의 시각이 어떠한지는 후에 보부상 조직을 이용해 개화파의 근거지였던 독립협회와 민권공회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도 확인할된다.

■박혜옥(한림대 사학과 강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름 · 원목 아베론 사용가능

**원두막** 6000 × 3000 × 3200 [mm]  
8000 × 3000 × 3200 [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팬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 × 620 × 350 [mm] 가격: 150,000 할인가: 120,000  
1800 × 1030 × 350 [mm] 가격: 180,000 할인가: 150,000

특수 제작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물,햇빛에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립식 평상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www.bungato.com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권영호  
전화주: 안시 무로베중 [진북목부기세발도] 지역대리점 보유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에서 직접 만든... **산초조청**

- 산초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초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초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씻어오르지 않는 **산초참옷 조청** 1.2kg  
아열,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장작용,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초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새부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초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이 대신 산초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원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초조청원**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상표등록: 614981호  
의정출원: 제35872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방한용 털신

지압식 깔창 | 발굽세 무릎방지

• 가격: 80,000원 |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가격: 215-290mm (키에 따라 조절가능) | • 가격: 2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대)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 결정 송금하세요

전지식 2중문 3중정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닫힌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